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0호 [루게 제25649호] 주제 106 (2017)년 5월 20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리만건동지, 리병철동지, 김정식동지, 정승일동지, 장창하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제의 붉은 담기가 힘차게 나뉘는 당중앙위원회청사앞으로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언덕과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풀 뱉공격수단,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직접 구상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그 실현을 위한 창조적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주체적 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을 안아 오시고도 그 모든 영광을 전사들에게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시련의 전만고비들을 완강하게 돌파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함으로써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대명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조선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세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크게 기여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켓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속신들레를 바싹 조이고 감위력한 주체무기와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우리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사회주의부루로 반석같이 다지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영웅적대진군을 선군의 핵보검으로 믿음직하게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맡겨주신 나라의 국방력강화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세상을 물었다놓는 《주체만세》의 장대한 피성을 다발적으로, 변발적으로 리쳐올림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제일기수,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3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인민무력성 기공식, 마감건설 및 과학기술발전 시회장을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사들을 보시면서 2년전의 기공식전시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건설부문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시

었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의 가치수가 많고 질도 높는데 대해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건설실비들과 자체들을 조선식으로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민대중평의회들, 중국의 환구망도 이 소식을 올렸다.

나이지리아의 인민대중평의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락방영에군인수지일용용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범파루씨조선인민의 권우협회 인민대중평의회는 이 소식과 함께 조선인민군항공 및 방항공군 4월22일대천대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만민의 다함없는 흥미를 받으시는 영원한 래양

대양집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룩한 20세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김세의 위인》, 《주체의 태양은 영원히》, 《영원한 태양 김일성》 등 제목의 글들을 특별하였다. 양볼라신문 《우 파이브》는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전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귀중한 사상비문지향식으로, 고무적기지로 되고있다. 주석께서는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의를 지니시고 여러 나라 인민들

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룩한 20세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김세의 위인》, 《주체의 태양은 영원히》, 《영원한 태양 김일성》 등 제목의 글들을 특별하였다. 그이께서는 인류자주위업에 쌓아 올린 거대한 공적으로 하여 세계 정치계에서 특출한 권위를 지니고 계시었다. 우간다신문 《한 라이즈》, 탄자니아신문 《우후루》, 민주통고신문 《파브로스페리페》, 베네수엘라신문 《메이》는 김일성주석처럼 세기를 이어 만민의 다함없는 흥미를 받으시는분은 역사에 일찌기 없었 다, 그이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진보적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신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

시다.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미증유의 전환을 이룩한 20세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김세의 위인》, 《주체의 태양은 영원히》, 《영원한 태양 김일성》 등 제목의 글들을 특별하였다. 신분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현명성 반제자주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 자주화위업을 주도해나간 사회주의 정치선로로 정중한 국제사회의 반향을 편집하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만민의 심장에 영생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에집트신문 《알 아흐라프》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이면위원을 최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헌신적생애에 대하여, 그이의 사상과 위업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해 드림없이 계승되고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모잠비크신문 《노미씨아스》도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사회주의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헌생을 찬양하였다. 잠비아신문 《브런드 라인 뉴스》, 에티오피아신문 《리프리》는 세계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 지명한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고 그이의 인력과 품모에 베풀을 금치 못한 사실자료들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